

연일 고개숙인 이재명·윤석열... '사과 정국'에 대선판 요동

이, 아들 불법 도박 즉각 인정
윤, 배우자 허위 이력 이틀만에
여야 상대 사과 진정성없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아들과 부인을 둘러싼 의혹 탓에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다. 보도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아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한 데 이어 오전 공개석상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이어 인터넷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는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동호씨 본인도 실명으로 입장문을 냈다. 그는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속전속결식 사과에 나선 것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성매매 의혹

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 "저도 확인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식 사과를 뚫 들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깜짝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여의도 당사 기자실을 찾아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4일 YTN이 김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만, 지난 15일 김 씨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었다.

앞서 김씨가 처음 사과 의향을 언급한 뒤 당 안팎에서는 향후 대응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을 온전히 매듭지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도이치모터스 주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 소송사 공개활동을 삼가온 김씨가 갑작스레 대중에게 노출되는 데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서서히 커졌고 결국 윤 후보의 '대리 사과'로 귀결됐다.

다 함께 사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윤 후보의 사과를 놓고 내부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다. "김씨의 입장이 충분히 같음 됐다"는 의견과 "소명되지 않은 범죄 의혹에 후보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상황



나란이 앉은 대선 후보들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오른쪽부터)·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원래 하루 이틀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윤 후보의 이날 사과 발언은 급조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대 후보의 사과 발언을 두고 진정성이 결여된 '영혼 없는 사과'라며 서로 삿대질했다.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며 "윤 후보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반성이 없는 '억지 사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

서 "이 후보의 사과는 '조건반사적 사과'에 불과하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며 "이 후보는 선택적 사과의 테크닉을 보여주며 아들의 불법행위 의혹의 뒤처리를 민주당에 하명했다"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아들 돌발 악재 변수 '2030 표심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30%대 중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고향 TK(대구·경부)에서 대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조한 것도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19일 "아직은 우리 지지층의 확실한 결속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중도보수층 공략은 지지율 우세가 가시화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대 변수는 아들의 불법도박 의혹이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잦아들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에서 이른바 '아들 리스크'가 불거졌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의혹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주춤했던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기는커녕 다시 열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14~16일 성인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를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2주 전과 동일한 36%를 나타냈다.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아들 리스크'가 본격화한다면 지지율 하향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무엇보다 그간 공들여온 2030 청년층 지지율에 미칠 파장에 쏠린다. 도박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의 장남 동호씨는 1992년생으로 현재 29세다. 27세였던 2019년에는 이 후보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한명숙 신년 특사 제외 가닥

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둔 이번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면을 요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끊임없이 재생산 '곤혹'

지지율 하락 '위기 경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윤 후보의 전격 사과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윤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억지 사과'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며 김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 후보는 19일 윤봉길 의사 89주기 추모식 참

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가짜도 많지 않다"라고 반문했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2013년 안양대 시간강사 지원 시 미국 뉴욕대 연수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민주당의 이날 추가 의혹 제기에도 대한 반응이었다.

당내에서는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선대위가 어렵사리 의혹 하나를 해명하면 민주당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휘말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

사에서는 당과 윤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위기 경보'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김씨 등판은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도 지난 17일 후보전략자문위원회 오찬에서 김씨의 공개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만일 집권하더라도 김씨가 공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논란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김씨가 지금처럼 언론 집착을 피하고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연합뉴스

강기정 '싱크탱크' 더큐브 정책플랫폼 출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책연구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광주시장 선거 행보에 나선다.

'더큐브정책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더큐브 정책플랫폼' 출범식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더큐브정책연구소'는 대선 지방선거부터 사실상 강 전 수석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는 이 자리에서 광주의 미래와 성장 가치를 담은 '더큰 광주 그랜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서는 강 전 수석이 '강기정이 묻고 광주 시민이 답하다'를 주제로 시민 1200여명과 의 응답 내용과 광주 미래 비전 4대 가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의 초광역협력 정책 기조에 맞춘 18개 전략·65개 정책도 내놓는다. 김준하 더큐브연구소 소장은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역사적인 해이자 광주 미래성장 엔진을 정착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며 "정책플랫폼은 '더큰 광주'를 디자인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